

더불어
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 보도자료
(본부장: 서미화 의원)

보도일시	2025. 5. 23.(금)	담 당 자	노혜담 선임비서관 (02-784-6441)
배포일시	배포 즉시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 ‘부산장애계 정책간담회’ 성료

- “장애인과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 을 위한 연대!”
- 서미화 본부장 “국가폭력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죽음 반복되선 안돼”

-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장애시민본부(본부장 서미화)와 부산 장애인 시민단체가 주최한 ‘부산장애계 정책간담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 오늘(23일) 부산역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정책간담회는 이번 정책간담회는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 당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추진할 장애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간담회에는 서미화 본부장을 비롯해 박종성 부산시당 장애인위원장, 안승문 남구 장애인위원장, 신송자 서·동구 장애인위원장, 이창우 부산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이흥호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김현자 부산근육장애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장애인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함께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와상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차량의 연내 개발, ▲버스정류장 등 교통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보전급여 대상자의 사각지대 해소 및 활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제화, ▲부산시립 장애인전문치과병원 설립 지원 등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안했다.

- 서미화 본부장은 “부산은 국가의 폭력과 방치 속에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아온 아픈 역사를 가진 곳이다”라며 “올해 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부산 영화숙·재생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이어 서 본부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지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돌봄과 자립, 이동·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다시는 그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간담회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삶과 권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과의 정책 연대를 이어갈 계획이다. //끝//

[붙임1] 부산장애계 정책간담회 현장사진

[붙임1] 부산장애계 정책간담회 현장사진

